

합창감상교재 개발에 관한 다양한 접근

강 호 진*

현행 음악교육과정에서 감상영역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음악사의 관점에서 중요한 많은 악곡이 누락되어있다. 감상악곡들은 주로 고전과 낭만시대의 것들이고 몇 개의 20세기 악곡들도 대부분 현대의 음악어법으로 작곡된 것이 아니다. 합창음악은 오랜 서양의 음악사를 통해 각 시대의 음악적인 특징들을 잘 반영하기에 좋은 감상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음반들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학구적인 선정기준이 바탕이 되어야한다. 뚜렷한 학습목표를 가지고 선정된 음반들을 교재로 기본적인 음악사에서 나타난 여러 음악적 특징과 표현, 각 시대의 합창단의 조직과 합창발성, 악상표현과 같은 음악개념들을 독창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주제어 : 합창음악, 음악감상, 감상교재

차 례

I. 서 론

II. 현행 음악교육과정 중 감상영역에 관한 고찰

1.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음악과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합창음악 감상과의 연계성
2. 초등음악교육과정에서 감상영역의 합창음악

III. 합창음악의 이해와 감상으로의 다양한 접근

1. 합창의 정의
2. 합창단 조직의 유형과 합창음악 감상교육과의 연계
3. 시대별 합창음악의 특징과 학습 목표
4. 감상 합창악곡의 선정기준
5. 비교 감상을 위한 합창문헌 선정과 교사들의 딜레마

IV. 결 론

* 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I. 서 론

합창은 고대에 발생한 여러 초기문명에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여 오랜 역사를 교육적, 종교적, 사회적, 예술적 등 다용도의 목적으로 인류와 함께 있어왔다. 중세시대의 종교적 양식이 합창의 틀을 세우고, 르네상스시대에는 과거의 종교적 용도의 틀에서 벗어나 합창음악을 통한 음악과 예술의 부흥을 예고하였으며, 바로크시대에는 기악음악의 융성으로 음악표현이 더욱 정교화 되고 새로운 장르인 오페라의 등장과 함께 합창과 기악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고전시대에는 대중들의 연주에 대한 더 많은 관심으로 음향효과와 형식미를 더욱 고려하여 대중과의 친밀함으로 발전하게 되고, 다분히 감성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낭만시대에는 과거의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합창은 더욱 풍부하게 발전된 기악의 음향과 오페라의 흥행의 영향으로 합창의 음량 역시 오늘날의 “꽤 찬(full-throated)” 성량으로 발전하게 된다. 20세기 이후 현대의 합창음악은 프로페셔널 단체와 아마추어 단체를 위한 두 가지 성향의 작곡 풍으로 나타나 더욱 무조성적(atonality)이고 학구적, 또는 더욱 대중적인 친밀함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합창의 오랜 역사를 경험시키는 것은 서양의 문화, 언어, 음악예술의 큰 흐름을 경험케 하고 장차 우리나라 미래의 음악을 조명함으로 교육적으로 매우 유익하다.

음악 감상은 음악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음악을 경험하고 느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음악 감상을 통하여 학생들은 소리의 예술적 美를 경험하고 작곡가들의 논리와 창의력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음악교육과정에서 합창음악교육은 주로 제재곡 위주의 합창을 통한 가창실습 위주로 이루어져있고 감상영역의 대부분은 기악음악에 편중되어 있다. 가창실습과 합창을 위한 제재곡 위주의 음악은 지극히 조성음악에 한정되어있어서 3화음과 조성음악,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음악의 개념들을 경험케 하고 교육시키기에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오랜 역사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하고 방대한 음악이 누락되어 음악사에 근거한 폭넓고 진정한 음악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창의성의 중요성과 또한 창의력 개발이 조기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함도 이미 교육계에서 인지하고 있다.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은 다양한 경험과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시작한다. 합창음악을 통한 감상교육은 다양한 음악 경험을 제공함은 물론 상상력을 자극하고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타 지역의 문화와 언어를 경험할 수 있다. 현행 교육제도상 많은 음악의 내용이 한정된 수업시간에 충실히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음악교사의 한계적인 음악 실력과 음악교과의 제재곡과 감상자료 만으로 학생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음악 경험을 시키기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의 대안으로 각 시대와 지역의 음악어법을 내포하는 합창음악은 다양한 음악경험과 음악사의 지식과 음악의 개념들을 보충하여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합창음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함축하여 제공함으로 교사들이 확신을 가지고 합창교육과 감상교육에 임할 수 있게 하고 합창음악의 기초 단계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교사 스스로 합창음악 감상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여 감상영역의 활성화와 내실을 기할 수 있다.

Ⅱ. 현행 음악교육과정 중 감상영역에 관한 고찰

1.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음악과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합창 음악 감상과의 연계성

음악과는 제7차 교과과정의 목표를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는데: ‘음악성 계발’, ‘창의성 계발’, 그리고 ‘음악적 정서의 함양’이다. “음악성과 창의성 계발은 다양한 악곡과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중략)....음악적 개념의 이해와 음악성, 창의성 계발은 다양한 음악 활동 뿐만 아니라 적절한 악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악적 능력을 기름으로써 음악적 정서가 함양되게 된다.”라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다양한 악곡’이 포함하는 것은 포괄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두 가지의 접근이 요구되는데, 즉 수직적 관점과 수평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전자의 다양한 악곡이라 함은 역사적 변천을 통해 이루어진 다양한 음악의 형태이고 후자는 각 시대에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음악의 형태를 의미한다. 합창 음악은 가장 오래된 음악문예장르 중의 하나로 오랜 시대 흐름의 변화에 의해, 각 지역의 문화적 차이에 의해, 또는 작곡가들 각자의 개성에 의해 서양 음악사의 여러 면에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악곡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합창음악 문헌을 통한 음악 감상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악곡을 경험케 하는 좋은 교육 수단이 된다.

‘가창’은 연주행위에서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즉 독창과 합창이다. 그러므로 가창교육은 합창의 가장 기본이 되고 직접 연관된다. “목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악기이며, 함께 노래 부르기는 독창이나 기악 독주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코다이(Z. Kodaly)는 합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홍수, 1990, p. 332). 또한 코다이의 음악 교수법에서 노래 부르기는 가장 중요한 학습형태의 하나이다. 그는 사람의 목소리가 음악으로 자신을 가장 직접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으로 간주하기에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훈련시켜야하고 그를 통해 음감을 개발할 것을 주장한다(이홍수, 1992, p. 337). 그러나 시대별, 지역별, 또는 장르별 가창 방법과 표현은 다르다. 교사는 이러한 다양한 가창의 예를 음악 감상을 통해 가창교육에 응용할 수 있다.

‘기악’은 합창음악 감상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기악을 통한 악상표현(dynamics) 구(phrase)와 절(period)과 같은 음악의 구성형식 등을 교육함에 있어서 가사를 가지고 있고 호흡을 음악표현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는 합창음악을 감상의 자료로 이용하면 더 효과적인 음악 개념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사가 없는 기악음악은 그 표현이 자칫 추상적이고 덜 구체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작’활동은 크게 기악음악 작곡과 인성음악 작곡으로 나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악음악 작곡 역시 기악교육에서의 음악표현과 마찬가지로 자

첫 추상적일 수 있기에 가사를 가진 인성을 위한 창작지도가 선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짧은 가사, 즉 몇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한 개 또는 몇 개의 단어 나 짧은 문장 등을 가사의 기본 단위를 삼고 선을 짓기, 리듬으로 표현하기 등 창작활동에 응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러한 가사의 예를 가진 독창 또는 합창음악 감상을 통해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

‘감상 활동’은 음악수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영역으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장르, 위대한 많은 작곡가, 특징 있는 여러 지역의 음악 등으로 감상영역을 넓혀 학생들에게 음악예술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이트는 그의 저서 ‘음악사를 통한 음악감상’에서, “어느 음악도, 어떤 점에서는 앞의 시대 작품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 과거의 음악과 어떠한 공통점도 없는 것만큼, 특수한 음악이나 새로운 음악 등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음악의 역사적 흐름과, 특수하게 들리는 음악에 대한 지식 등은 매우 중요하다(화이트, 1997, p. 16).”라고 음악사에 근거한 음악 감상교육을 강조하였다. 감상영역에서 합창음악의 역사적인 가치뿐 아니라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표현수단이 목소리임으로 듣는 이에게 의미와 감정이 직접 전달된다. 또한 합창은 독창에 비하여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어울려 화성, 다이나믹스,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등의 표현이 자유롭게 구사되기에 좋은 감상의 재료가 될 수 있다.

2. 초등음악교육과정에서 감상영역의 합창음악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음악 감상은 전체 감상 곡 중 한 곡, 헨델(G. F. Handel)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 코러스’만이 합창음악이고 나머지는 기악음악이나 한국 전통음악으로 구성되어있다. 초등음악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에서 ‘할렐루야’ 감상을 통한 학습주제를, ① 합창의 특징 파악하며 듣기, ② 각 성부의 특징과 음색 구별하기, 두 가지로 정하였다. 그러나 첫째 학습주제인 합창음악의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해도 ‘할렐루야’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며, 둘째 학습목표인 합창에서 각 성부의 특징과 음색 구별하기로는 ‘할렐루야’보다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 다른 합창음악도

많다. 합창음악 감상은 합창음악 그 자체의 이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음악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각 학년에 적합한 합창음악 감상자료를 개발하고 합창음악의 감상비중을 높여야 한다.

효과적인 합창음악 감상지도를 위해서 교사는 먼저 합창음악에 관한 기초 개념을 정립하고 나아가 전문지식을 지닌 합창음악의 교육자가 되어야 하며 폭넓은 합창음악 감상을 교과내용에 포함시킴으로 인한 구체적인 교육 목표와 그 의미를 연구하여야 한다.

현행 초등음악교과서의 감상을 위한 서양악곡의 시대와 장르는 고전과 낭만시대에 편중되어있고 현대시대로 분류되는 몇 개의 감상악곡들도 낭만시대의 표제음악형식을 취하는, 진정한 현대음악기법을 적극 활용한 악곡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현대음악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현대음악, 또한 중세와 르네상스시대의 음악은 단 한곡도 없기에 균형 잡힌 감상악곡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음악사의 관점에서, 초등음악교과서의 감상영역에서 다양한 악곡의 결핍은 오랜 세월동안 서양의 작곡가들이 남긴 위대한 가치 있는 음악 유산을 올바르게 교육시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감상악곡을 통한 학습목표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 각 시대의 다양한 음악적 어법과 특징, 그리고 음악의 개념을 조기에 경험케 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목표를 설정함으로 이룰 수 있다. 합창음악을 보충적으로 또는 주된 교재로 감상악곡에 첨가하여 쉽고 효과적으로 학습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기위해 전반적이지만 중요한 합창음악의 특징들과 기법, 장르, 주요 작품들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Ⅲ. 합창음악의 이해와 감상으로의 다양한 접근

최근 미국과, 서양의 여러 나라의 음악학자들과 전문연주단체의 지휘자들에 의해 정격연주(正格演奏, Authentic Performance)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과거의 음악을 작곡가의 의도와 그 시대의 연주관습에 가장 어울리게 재현하려는 것인데, 합창음악에서도 많

은 고음악(古音樂, Early Music) 전문 연주단체들이 활발한 연주활동과 음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합창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창법으로 어떤 음향을 재현하며, 또한 당대의 어떠한 음악어법과 악상표현을 적용시킬지의 해석 등 많은 섬세한 작업을 한다. 고중한 문헌과 학구적인 추측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양의 음반 자료들은 훌륭한 교육용 감상재료가 된다. 그러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합창의 역사적 근거를 공부하여야 한다.

1. 합창의 정의

합창(Choir 또는 Chorus)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성부를 나누어서 함께 연주하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단체; 또한 그러한 단체를 위하여 작곡된 작품”이다. 영국에서는 종종 콰이어와 코러스를 구분하는데, 적은 인원의 잘 훈련된 전문적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종교적 단체를 주로 콰이어라 부르고, 대체로 인원수가 많은 세속적인 단체를 코러스라 칭한다(Sadie 編, 1994, pp. 161-163). 중창은 보다 큰 의미로 합창에 포함되나 작곡가들은 연주에서 합창과 중창을 구분하였다. 즉 중창은 각 성부에 한 명씩의 독창자들로 구성된 단체(a group of soloists, one singer to each part)이고, 합창은 각 성부에 한 사람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more than one singer to each part)로 구분한다.

2. 합창단 조직의 유형과 합창음악 감상교육과의 연계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 정착한 다양한 합창단들은 그 창립목적과 용도가 다양하다. 교육목적의 교내 합창단, 종교적 목적의 교회, 또는 기타 종교단체 합창단, 지역의 문화예술 보급과 홍보를 위한 시, 도 또는 구립 합창단, 상업목적의 사설 전문합창단, 또는 일반 동호회나 특수목적의 합창단 등 합창활동이 활발하다. 학교에서 감상교육과 연계한 합창단의 선별은 첫째, 일회성이 아닌 꾸준하고 활발한 음반활동의 유무, 둘째, 단순히 흥미위주

가 아닌 그들만의 개성 있고 뚜렷한 목적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음반의 유무, 셋째, 정격연주에 근거한 음악해석 등이다.

합창에서 어린이와 성인의 구분은 변성기를 기준으로 하고 서양음악사에 서의 어린이합창단이라 함은 변성기 전의 소년들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한다. **어린이합창단**은 크게 교내의 합창단과 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어린이합창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교내의 특별활동시간의 합창단으로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임인 반면 후자는 고난도의 작품들도 연주할 수 있는 전문단체로 서양에서는 주로 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 무렵부터 주로 10대의 소년소녀들로 구성된 전문 어린이, 또는 청소년합창단이 활발한 연주활동과 음반활동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합창단은 변성기가 지나고 주로 성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엄격히 성인 합창단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소녀들과 소수의 소년들로 구성된 우리나라 전문 어린이합창단은 서양 음악사를 통한 합창단 조직의 근거가 없기에 정격연주에 근거하여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서양의 정통 합창문헌은 지극히 한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통소재의 창작, 편곡된 음악, 또는 창작, 편곡된 동요나 대중음악을 주된 레퍼토리로 하기에 우리 전통의 음악을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감상자료가 된다. 짧은 역사의 우리나라 어린이합창단에 비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양의 소년합창단은 역사적인 정통문헌과 다양한 소재의 풍부한 합창문헌으로 서양문화의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감상자료를 제공한다.

성인 합창단은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그리고 혼성합창단으로 구분한다. 미국과 유럽의 대표되는 대학합창단과 전문 합창단들은 어린이합창단과는 달리 장르별, 또는 시대적 특징들을 적절한 발성으로 표현한 많은 합창문헌을 음반으로 남기고 있어 감상교육에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슈베르트를 비롯한 낭만시대와 그 이후의 작곡가들은 순수한 남성합창, 여성합창을 위한 작품들을 남겼고 그러한 작품들의 음반들은 남성, 여성의 음색구분을 위한 감상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된 한국의 시립합창단들을 비롯한 전문합창단들도 다양한 장르의 합창작품들을 음반으로 남기는데 특히 기존의 한국가곡과 민요를 합창으로 재편성한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3. 시대별 합창음악의 특징과 학습목표

1) 중세시대의 단선율 음악

중세시대 합창단의 구성은 전적으로 남성들, 또는 간혹 소년들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당시 전형적인 성가대의 규모는 4~6명의 소년들과 10~13명의 성인 남성으로 구성되었을 수 있다(Sadie, 1994, p. 162). 당시의 주된 음악은 단선율 성가¹⁾로 선율적 구성은 이른바 교회선법(Church Mode)이고 선율적 요소는 가사의 대부분 혹은 모든 음절이 각기 음표 한 개씩을 갖고 있는 형태의 “음절적(syllabic),” 한 음절 위에 많은 음들이 긴 선율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태의 “다음절적(melismatic),” 그리고 보통 2~4개의 음가들의 그룹이 한 네움(neume)²⁾을 이루고 한 음절이 이 네움에 붙여진 형태의 “그룹 선율적(neumatic),”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Sadie, 1994, pp. 625-626).

이 시대의 음악 감상을 통하여 가사의 음절과 연관된 선율의 특징 파악하기, 즉 한 음절에 한 음 또는 한 음절에 여러 음들이 있는가의 여부, 또한 유니즌으로 부르는 무반주 남성합창 구분하기 등으로 학습목표를 삼을 수 있다. 선율의 구조적인 특징을 교육하기 위해 그레고리성가의 한 예와 그 시대의 음악어법을 이용한 현대의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다. 브리튼(B. Britten)의 “개를 위한 의식(A Ceremony of Carols)” 중 첫 번째 악장과 그레고리성가가 좋은 예로 변성기 전의 소년들의 합창과 성인 남성합창과 비교하고 합창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니즌에 의한 합창을 경험할 수 있다.

-
- 1) Plain Chant: 그리스도교의 전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單聲部의 성가로 무반주에 유니즌으로 부른다. 특별히 찬트의 문헌 중에도 라틴가사에 의한 것을 의미하며 더 한정적으로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공인된 그레고리성가의 문헌을 의미한다.
 - 2) neumes: 중세시대의 음악 표기법으로 주로 선율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보통 한 음에서 네 개의 음표들로 구성된다.

2) 르네상스와 바로크시대의 다성음악(polyphony)

르네상스의 종교적 다성음악은 합창으로 연주되기 시작했고 현대의 기본 4성부(SATB)배치로 편성되어 모방기법³⁾이 활발히 작곡에 응용되었다. 이러한 모방기법은 바로크시대에 더 세련되고 정교하게 발달하여 바흐에 의해 절정에 이르게 된다.

르네상스시대 합창단의 규모는 20~30명으로 구성되었고 거세한 성인 남자 가수인 카스트라토(castrato singers)가 로마 가톨릭교회에 소개되고 소년들과 함께 고음역을 연주하게 된다. 바로크시대의 합창단은 30~40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었고 종종 응창효과(antiphonal effects)를 위하여 합창단을 둘로 나누어 이중합창(polychoral)으로 연주하기도 하였다(Sadie, 1994, pp. 625-626). 이러한 전통은 “꼬리 스페짜티”⁴⁾라고 불리는 작곡 관습에서 유래하여 르네상스시대의 가브리엘리(A. Gabrieli)를 비롯한 베네치안 악파의 작곡가들에 의해 보급되었고 후대의 몬테베르디(Monteverdi)의 종교음악과 바흐의 모테트⁵⁾에서도 그런 영향을 볼 수 있다(Ulrich, 1992, pp. 64-65).

르네상스시대는 종교개혁과 이에 대한 반종교개혁 운동으로 음악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즉 개신교음악의 변화와 16세기 무반주 합창을 위한 다성음악의 발달이다. 팔레스트리나를 비롯한 이 시대의 반종교개혁 편에 선 작곡가들의 종교적 무반주 합창음악은 종교적 신비함과 거룩함을 다성적 표현으로 세련미의 극치를 이룬다. 이런 르네상스의 다성음악은 바로크시대 조성(Tonality)의 성립과 함께 기악음악의 다성화로 발전되었고 정선율(cantus firmus)과 대선율(counter point)을 이용한 기교적인 기법이 합창에 사용되었다. 또한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등의 장르가 발달하면서 합창의 역할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취급되었다.

3) 돌립노래, round,가 가장 초기 단계의 모방이고 점차 발달하여 바흐의 푸가에 이르기까지 음악사의 많은 작곡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4) *cori spezzati*: 17세기 이태리 베니스에서 가장 절정을 이룬 종교적 용도의 복합창 음악으로 연주하는 건물의 구조상 합창단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연주하는 관습이 성 마가 성당(St. Mark's Cathedral)에서 유래하였다.

5) Motet: 13세기에서 18세기에 활발하게 작곡된 종교적 합창을 위한 다성음악 양식

기악음악의 활성화로 바로크시대의 합창은 관현악에 의한 반주형태가 널리 보급되었고 바소 콘티누오⁶⁾의 사용으로 합창의 베이스는 저음 악기들로부터 독립되지 못하였고(Stanley Sadie, 1994, pp. 625-626) 다른 성부들 또한 반주하는 악기들과 많이 중복되었다. 르네상스의 무반주 합창을 위한 다성음악의 한 예와 바로크의 기악반주에 의한 대위법적 합창을 위한 다성음악의 한 예를 비교 감상하는 것은 두 시대의 다성음악을 구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미 초등음악교과서에 소개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 코러스’와 같은 가사를 가지고 있기에 흥미롭게 비교될 수 있는 헨델의 ‘대제사장 사독(Zadok the Priest)’ 중 기교적인 부분은 바로크의 대위법적 기교를 잘 묘사하고 있고 팔레스트리나(G. P. da Palestrina)의 무반주 합창의 다성음악과 좋은 비교감상이 된다. 또한 르네상스의 종교적 거룩함이나 신비함은 알레그리(G. Allegri)의 ‘미세레레(Miserere)’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 두 시대의 음악을 통하여 르네상스시대의 여러 성부가 부르는 무반주 남성합창과 바로크시대의 기악합주가 반주하는 합창음악을 구분하기, 음악의 내용에 있어서 종교적, 그리고 세속적 표현 구분하기, 두 선율의 대위법적 기교의 이해, 오라토리오를 통한 종교적 극음악의 이해 등으로 학습목표를 정할 수 있다.

3) 고전과 낭만시대의 단성음악(homophony)

영국의 산업화, 프린트 기술의 보급, 수많은 합창협회(choral society)의 조직으로 합창은 매우 활성화되고 규모는 더욱 커졌다. 악기제조의 발달과 더욱 규모가 커진 오케스트라의 음향에 부합하기 위해 합창의 대형화는 필수적이었다. 오페라에서 합창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듯이 오라토리오, 종교칸타타와 같은 종교합창에서도 합창의 역할은 중요하였다. 종교적, 또는 세속적 가사의 내용으로 인한 장르의 구분 이외에 종교합창의 음악적 내용은 세속

6) basso continuo: 지속하는 베이스 선율과 그 위에 붙여진 숫자저음에 의해 화성반주를 담당한 오르간, 또는 쳄발로와 같은 건반악기와 첼로와 바순과 같은 몇 대의 저음역의 악기群으로 구성된 반주형태

화되어 더욱 극적이고 웅장하게 변하였다. 과거 종교개혁의 영향과 바흐(J. S. Bach)의 코랄에서 체계화된 기능화성(function harmony)의 소개로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다분히 기계적이고 기교적이지만 극음악의 극적 묘사에는 비효과적인 대위법적 다성기법은 점차 작곡에 응용되는 횟수가 줄고 단성음악이 즐겨 사용되는 음악어법이 되었다.

순수 기악음악의 장르이던 교향곡은 베토벤에 의해 합창이 포함된 합창교향곡(choral symphony)을 비롯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작품으로도 많이 작곡되어 합창은 연주회에서 더욱 중심역할을 하게 되었다. 소위 ‘오페라합창’이라 칭하는 극음악에 동원된 합창 이외의 순수 합창영역에서는 피아노의 등장으로 과거 단순히 합창과 중복하던 통주저음(Basso Continuo)의 반주형태에서 더욱 세련되고 독립된 반주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남성, 또는 여성을 위한 단성(單性)합창단을 위해 주로 세속적인 서정시에 의한 낭만적인 합창음악이 소개되었다.

베토벤(L. van Beethoven)의 9번 교향곡, 4악장의 ‘환희의 송가(Joy theme)’와 ‘합창환상곡(Choral Fantasy)’의 합창부분을 발췌하여 비교감상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단순한 한 개의 주선율을 한 성부에 의해 부각시킨 단성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베르디(G. Verdi)의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Il trovatore)’ 중 집시들의 ‘대장간의 합창’과 ‘춘희(La traviata)’ 중 ‘축배의 노래’는 각각의 오페라 줄거리에서 그 합창이 차지하는 의미와 함께 낭만시대의 오페라 장르와 극적인 오페라합창의 음색을 경험하게 하는 좋은 감상자료이다. 합창에서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음역과 음색을 구분하고 경험케 하는 좋은 자료로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1828)를 비롯한 당대의 많은 작곡가들의 단성(單性)합창을 위한 소품들이 있다.

이 시대는 남성합창과 여성합창의 비교 그리고 세속적 극음악인 오페라로의 접근, 단성음악에서의 주선율, 합창교향곡의 이해 등으로 학습목표를 정할 수 있다. 이 시대는 기악음악이 매우 발달하였고 악상표현이 더욱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기에 합창음악이 교과에서의 음악개념 등 학습목표 달성에 보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이든의 ‘천지창조’ 중 첫 합

창부분의 'Licht(Light, 빛)'을 강조하기 위한 *sf* 등, 악상표현을 합창에 사용된 가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20세기 이후의 다문화(multi-cultural) 음악

20세기 이후는 합창음악에서 많은 변화가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주로 독일, 이태리 그리고 영국의 작곡가들에 의해 음악이 주도되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외의 나라들에서도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음악적인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20세기 이후 합창음악의 경향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순수예술의 “모더니즘(modernism)”의 영향을 합창음악에 반영시킨 것과 “대중적 현대음악(contemporary music)”의 실용음악을 응용한 대중 합창음악이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20세기 이후 더욱 양극화 된다. 전자는 작곡가가 추구하는 각자의 “주의(主義, ism)”를 따라, 또는 전자음악의 도입과 아방가르드 등의 여러 음악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한 음악으로 과거의 단순히 가사와 부합한 의미전달의 합창음악에 한정되지 않고 합창을 하나의 음향적인 악기로 간주하고 각각의 음악이론에 근거하여 작곡한 음악이다. 이러한 합창은 조성이 파괴⁷⁾되어 무조성(atonality)화 되고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박(拍, beat)의 흐름⁸⁾이 불규칙적으로 강조되거나 무너지는 음악적 특징이 있다. 이러한 합창음악은 작곡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과 음악이론을 바탕으로 작곡되기에 점차 대중화와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감상교육을 위해 이러한 합창음악은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며 또한 작곡가와 그 음악에 관한 충분한 이론적 배경을 공부하여야 한다.

오르프(C. Orff)의 ‘까르미나 부라나(Carmina burana)’ 번스타인(L. Bernstein)의 ‘취체스터 시편(Chichester Psalms),’ ‘카디쉬(Kaddish),’ 그리고

7) 기존 3화음 체계가 붕괴하여 수직적 음군, non-triadic harmony,들과 선율을 구성하는 음군의 수평적 움직임, melodic gravity, 이 기능적으로 결속력이 사라져 생긴 결과

8) rhythmic pulsation: 2, 3 그리고 4, 6박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느끼는 기본적인 박의 개념이다

합창을 사용한 그의 교향곡들, 스트라빈스키(I. Stravinsky)의 발레음악 '결혼(The Wedding)' 등은 현대의 음악기법을 적절히 구사하면서도 매우 극적이고 쉽게 학생들이 접근하여 현대어법의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합창음악이다.

반대로 후자는 연주자의 연주흥미와 대중의 관심을 목적으로 하기에 음악의 극단적인 변화는 지양하지만 20세기의 여러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진 청중에게 신선한 감동을 유지하고 더욱 상업화하기 위해 전자악기 등의 새롭고 다양한 연주매체와, 조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대중적인 음악어법을 개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고유의 민속소재를 이용한 합창음악이 새로운 장르로 등장하였다.

미국 브로드웨이의 뮤지컬과 디즈니社 등에서 생산하는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음악은 재즈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여 타문화의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감상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에서 사용되는 합창은 과거 르네상스의 합창음색이나 낭만시대의 오페라합창의 음색과는 달리 "스튜디오 음색"으로 분류하고 현대 합창에 자주 사용되는 가벼운 합창발성의 한 예로 교내 합창단과 수업시간의 합창교육을 통한 극음악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판소리 '춘향가'의 '농부가'나, 창극 '심청전'의 '뱃노래'를 발췌하여 들려주고 다시 같은 음악을 서양창법의 합창음악으로 감상하게 함으로 한국합창음악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

이 시대의 합창음악은 다양한 방법과 목적으로 대중에게 접근하는데, 영화나 뮤지컬과 같은 현대의 극음악에서 사용하는 합창음악은 극적인 배경묘사와 이야기의 전개를 위하여 사용되기에 학생들에게 시각자료와 함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시청각을 통한 감상과 연계하여 위에서 언급한 현대합창음악 등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상상을 도울 수 있다. 감상 후에 학생들에게 어떤 배경이 그 음악과 어울리는지 그림이나 무용 등의 표현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상상력을 도울 수 있고 또한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서양합창과 한국합창 그리고 대중적 창법의 합창 등의 개념을 경험케 하는 학습목표를 정할 수 있다.

4. 감상 합창악곡의 선정기준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학곡 이외에도 교사가 먼저 뚜렷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학구적이고 교육적인 감상용 합창악곡의 적절한 선정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기준을 정하면 다음과 같다.

1) 당대의 음악양식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1) 어떤 기법인가?

시대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악곡을 선정하여야 그 악곡을 바탕으로 음악사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가끔 그 시대의 음악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난 시대(가끔은 미래의 기법을 미리 사용하는 악곡도 있다)의 어법으로 표현한 작품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단순히 듣기에 아름답다고 감상악곡으로 선정한다면 목표하는 학습개념이 오히려 방해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반드시 당대의 작곡가에 의한 악곡만이 그 시대의 음악어법을 잘 표현한다고 할 수도 없다. 많은 20세기의 작곡가들은 그들의 작곡동기를 과거에서 찾고 더욱 세련되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한 작품들은 음악사적 개념을 정립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2) 어떤 장르인가?

오랜 세월동안 여러 시대에 거쳐 작곡된 합창 장르가 있지만 당대에 가장 활발히 작곡된 장르는 그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잘 반영한다.

(3) 당시의 시대배경은?

어떤 작곡가들이 어떤 사회적 직책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나 교류가 있었는가는 그들의 작품에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세나 르네상스시대의, 그리고 바로크시대의 바흐와 같은 많은 작곡가들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많은 종교합창곡을 남겼고, 멘델스존, 브람스 등 낭만시대의 작곡가들은 시인들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합창음악에 그들의 시를 가사로 사용한 많은 작품을 남겼다.

2) 학생들에게 심미적 경험을 줄 수 있는가?

단순히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악곡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각 학년에 어울리는 학구적인 감상을 위한 접근도 필요하다. 그러나 심미적 체험과 학구적인 두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악곡의 선정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음악의 심미적인 면을 고려한 기준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다. 그러므로 선곡은 교사의 주관적인 음악적 취향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3) 합창만이 가지는 음악개념이 있는가?

합창이외에 다른 형태의 음악매체가 갖지 못하는, 또는 합창음악으로 더 잘 표현될 수 있는 합창음악만의 독특한 영역에서 고려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다.

(1) 감상하는 합창악곡의 언어를 초등 외국어교육과 연계하여 지도가 가능한가?

기악음악과는 달리 인성을 연주매체로 사용하는 음악에서의 언어는 의미를 직접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 교육이 필수적으로 인지되고 또한 조기 교육이 외국어 습득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현대의 교육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다. 초등 외국어교육과 연계하여 외국어를 음악으로 접하고 초등 외국어 교육에서 필수적인 단어들의 기본 구성개념이나 기초되는 문장을 경험시키기에 합창음악 감상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합창음악에서 사용되는 주된 외국어로는 라틴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불어, 영어 등이 있다. 영어를 비롯한 라틴계통의 언어를 로망스語(Romance language)라 통합 지칭하는데 주로 합창음악에서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다.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은 라틴어를 통해 어원을 이해하면 여러 나라의 언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라틴어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합창음악 감상으로 단순히 듣기 경험시키고 점차 로망스語들의 유사한 발음, 또는 철자를 사용하는 단어들과 비교하면서 발전된 외국어교육이 가능하다.

(2) 타국의 음악요소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각 나라나 지역은 그들의 고유한 음악요소와 연주방식이 있다. 과거의 유럽이 음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성숙한 단계의 음악으로 발전시켰다면 20세기의 많은 작곡가들은 새로운 음악 소재를 과거의 민속적인 동기나 타문화에서 흡수, 동화시켜 새로운 어법을 창조하려한다. 그 중에서도 동양과 아프리카의 전통예술은 그들에게 많은 신선한 작곡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20세기 후반부터 한국 합창음악에서도 한국의 민요나 민속적인 소재를 가지고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을 비롯한 무용, 의상, 언어, 종교행위 등 학생들에게 타문화를 동시에 경험시키기 위해 음악과 시각자료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타문화를 간접 경험시키기에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지만 음악과 관련된 시청각교육은 두 가지 면이 고려되어야한다. 즉, 시각자료가 감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감상하는 합창 또는 성악의 악곡에서 작곡가에 의해, 또는 음악에 사용되는 가사나 제목에서 의도적으로 묘사하는 주제가 있다면(program music, 표제음악) 그것과 관련된 시각자료를 사용함으로 감상하는 음악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사가 없거나 작곡가에 의한 특정한 부제가 없는 절대음악(absolute music)의 작품들은 시각자료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자칫 지도하는 교사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시각자료를 준비하고 감상 악곡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음악을 통한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과 직접 상관없는 시각자료는 학생들에게 고정형상화 되어 그 음악이 전달하고자 하는 학구적, 또는 심미적 의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합창만의 독특한 음악표현은 있는가?

합창음악은 여러 사람이 인성을 통하여 연주하는 장르인 만큼 기악과 같은 다른 장르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표현수단이 있다. 즉, 자음과 모음을 가진 의미를 가졌거나 의성어나 의태어 등의 묘사의 가사를 가지고 인성을 통한 수직적 화성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독창악곡과는 달리 호흡의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는데, 즉 여러 사람이 숨쉬는 곳을 달리하여 마치 듣는 사람들에게는 숨을 쉬지 않고 노래 부르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4) 감상영역의 기존 기악악곡, 또는 두 곡 이상의 다른 합창악곡과 연계하여 어떤 특징은 있는가?

감상악곡을 통하여 의도하는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비교 감상 할 수 있는 악곡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1) 유사하거나 같은 점은 무엇인가?

사무엘 바버(S. Barber)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는 초등음악의 감상용으로 사용되기에 충분히 쉽고 잘 알려져 있다. 그 음악은 현악합주와 합창음악, 두 버전의 음반으로 출시되어 먼저 각 현악기를 소개하고 현악합주의 음향과 서정성을 합창음악의 그것과 비교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전통 민속음악을 합창음악으로 재구성한 버전도 있고 과거의 잘 알려진 기악음악이 새로운 음향으로 표현되고 편곡된 음반도 많다. 이러한 유사한 음반들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유사성을 고려한 선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같은 작곡가에 의한 비슷한 풍의 작품들

- 예) 베토벤의 9번 교향곡 中 4악장의 ‘환희의 송가’와 ‘합창 환상곡 (Choral Fantasy)’,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中 ‘할렐루야 코러스’와 ‘대제사장 사독’의 합창부분 등

② 다른 작곡가에 의한 같은 주제를 가진 작품들

- 예) 홀스트의 ‘혹성’중 ‘해왕성’, 드뷔시의 ‘바다의 여신(Sirènes)’, 파헬렐의 ‘카논’과 리베라소년합창단의 ‘상투스(Sanctus)’ 등

③ 같은 음악이지만 다른 연주매체나 다른 풍으로 편곡된 작품들

- 예)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와 합창으로 편곡된 많은 음악이 있고 킹스 싱어즈(King's Singers), 스윙글 싱어즈(Swingle Singers) 등과 같은 단체는 여러 기악음악을 합창으로 편곡하여 많은 음반을 남겼다.

(2) 상반된 점은 무엇인가?

대체로 기악합주 음악은 스타카토나 마르카토 기법을 표현함에, 합창음악은 레가토 기법을 표현함에 용이하다. 특히 종교적 신비함이나 거룩함을 음악으로 표현하기에 과거부터 합창음악만이 유일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한 두 종류의 상반된 음악개념을 교육하기에(또는 다른 목적으로) 세속적인 기악합주음악 감상과 종교적인 합창음악 감상이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다.

5) 감상곡이 합창실습의 가창과 표현을 위한 좋은 예가 되는가?

교내합창단을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 중 악상표현, 발성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하느냐 일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도하는 교사가 직접 올바른 예를 들려주는 것이겠지만 간혹 그것이 적절치 못하거나 어려울 때가 있다. 교사가 원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음반을 찾아 감상시킴으로 원하는 효과에 근접할 수 있다.

(1) 자음과 모음은 어떻게 음악적으로 부르는가?

외국어를 가사로 사용하지만 교내합창단이 연주할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많은 합창문헌이 있다. 적극 그러한 문헌들을 연주회의 프로그램에 활용함으로써 풍부하고 다양한 합창문헌보급은 물론 학생들을 위한 간접적인 외국어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지도하는 교사들은 원어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전혀 새로운 우리말의 가사로 옮기기도 하는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 합창지휘자이고 교수인 카플란(1985)은 작곡가가 사용한 원어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인성음악은 작곡가가 애초에 가사로 사용한 언어로 연주할 때 그 음악의 매력이 명백해진다. 음악에 가사로 사용되는 각 언어의 독특한 특성의 의미를 단순히 고수하는 것 이외에도 작곡가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언어의 정확한 발음의 소리를 음악으로 재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음악을 듣는 청중이 그 원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청중들에게 그 원어의 즉각적인 이해를 포기시키고 그 원어가 갖는 발음의 소리를 고수하던지 아니면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해야하는데 그렇다면 그 원어가 갖는 고유하고 독특한 발음의 소리를 포기해야만 한다(p. 69).

그러나 외국어 가사를 음악적으로 옳게 지도하기란 많은 공부와 경험이 요구된다. 우수한 전문 합창단의 음반은 지도하는 교사를 준비시키고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지만 단순히 음악해석의 모방은 하지 말아야한다.

(2) 가성과 진성은 어떻게 소리가 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합창을 지도하는 교사가 겪는 또 다른 어려움 중 하나는 변성기 전의 학생들을 어떤 발성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거기에 관한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그러나 연습하는 음악의 음역이 진성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어떤 스타일의 음악이고 또 어떻게 음악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도하는 교사가 발성방법을 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교사의 해석과 음역이 가성에 의한 발성이 요구된다면 학생들에게 무리하게 강요해서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없다.

변성기 전의 학생들이 낼 수 있는 성질(聲質)은 대체로 세 종류로 분류하는데, 즉 진성(chest voice)과 가성(falsetto) 그리고 중간정도의 가벼운 두성(light head voice)이지만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진성으로 노래하려한다.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진성으로, 그리고 가성으로 연주된 음반을 각각 들려주고 차이를 이해시키면서 접근해야한다.

가렐슨(1998)은 아이들의 성대와 소년들의 변성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사람은 목소리로 다양한 소리들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아동은 성인의 성대구조보다 작고 성숙하지 않아서 꾸준한 훈련을 통하여만 성대를 발전시킬 수 있다. 변성기 이전의 5, 6학년 어린이들의 음성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고 그 전의 아동들보다 보편적으로 더 맑고 공명이 좋은 단계에 있다. 이 단계의 학생들은 애민하고 잘하기를 바라며 또한 자기들이 성취한 것에 자부심을 갖는 나이다. 아 때가 무거운 흉성에서 가볍고 플루트와 같이 맑은 두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로 지속

적이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중략)....이러한 가벼운 성질(聲質)을 통해 아이들은 높은 음역을 개발할 수 있고 성대의 긴장이나 부담 없이 그 음역을 활용할 수 있다. 소년, 소녀들로 구성된 어린이합창단을 지도하는 교사는 아이들 각자의 개성 있는 목소리를 구분하게 되고 특히 소년들의 음색이 대체로 음의 초점이 없고 너무 가벼워서 산만한 소녀들의 음성보다 더 맑고 곱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pp. 137-138).

5. 비교 감상을 위한 합창문헌 선정과 교사들의 딜레마

위에서 예로 제시된 합창음악 이외에 교사의 독창적인 감상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합창음악에 전문적인 지식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음반 수집을 통해 풍부한 자료를 확보해야하고 그렇게 수집한 음반자료를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검토해야한다.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합창전문 지휘자나 음악학자들의 자문을 구하면 그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준비한 감상자료를 전달함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독창적인 여러 방법들 중 비슷하거나 또는 대조적인 음악을 비교 감상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해를 용이케 하며 또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관심과 집중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감상자료를 선정할 때 비교 감상할 수 있는 몇 개의 범주를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주로 미사의 통상문에 의한 가사나 관용구절을 이용한 같은 가사의 다른 음악 비교 ② 같은 장르의 다른 해석 - 예를 들어 성필립소년합창단과 리베라소년합창단은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이나 빈소년합창단과는 달리 현대의 음향기술과 악기를 적극 활용하여 같은 시대의 같은 장르지만 색다른 음색을 제공한다. 또 한 예는 르네상스 음악을 주된 문헌으로 하는 성인 남성으로 구성된 힐리아드 합창단(The Hilliard Ensemble)인데 현대의 악기와 접목하여 르네상스 종교음악을 새롭게 해석한다. ③ 소년합창, 남성합창, 여성합창, 혼성합창 등 음색과 음역에 의한 비교, ④ 다른 시대의 같은 장르별 비교 감상 - 대규모 편성의 오케스트라반주에 의한 베르디의 진혼곡(requiem) 중 웅장하고 화려한 ‘상투스’와 카운터 테너 솔로와 무반주 합창을 위한 번스타인의 ‘미사 브레비스(missa brevis)’ 중 ‘상투스’는 많은 대조를 보인다. ⑤ 주로 표제음악

을 중심으로 기악음악과 합창음악의 비교 ⑥ 동시대의 다른 문화의 언어와 음악 - 현대에 등장한 ‘월드 뮤직(world music)’이라는 장르는 많은 합창음악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젠킨스(K. Jenkins)의 ‘칸투스 이테라투스(Cantus Iteratus)’와 팬쇼우(D. Fanshawe)의 ‘아프리카 상투스(African Sanctus)’ 등과 같은 음악이 그러한 예이다.

합창음악을 감상자료로 사용함에 있어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들 중 하나는 합창음악이 갖고 있는 원어 가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원어인 합창단이 원어로 연주하는 음악을 직접 감상케 하여 의미 없이 귀에 들리는 언어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토록 하는 것이다. 음악적으로 처리된 타언어의 심미적 경험을 위하여 그 음악에서 강조되거나 또는 전체 가사 문맥의 흐름상 중요한 몇 개의 단어의 발음과 의미를 함께 알려주고 감상케 한 후 그 단어를 구성하는 모음과 자음을 교사가 직접 정확히 발음하여 입모양과 함께 먼저 보고 듣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후 다시 감상하게하고 그 단어가 나올 때 합창단원들의 입모양을 상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체 의미를 알려주기 전에 미리 알려준 몇 개의 단어를 통하여 전체 가사의 의미를 짐작케 하는 것도 재미있는 감상방법이다. 이러한 감상방법은 여러 나라의 언어를 조기에 경험케 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교사는 이러한 감상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중요한 몇 개국의 기본적인 발음법(diction)도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특정한 종교의 합창음악을 어떻게 공교육에 적용하여 교육하여야 하는 것이다. 많은 합창음악의 유산이 특정 종교의 가사에 의한 것이기에 종교합창음악은 합창음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음악교육과 음악경험에 필수적이고 적절한 것임을 교사는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즉, 종교음악을 음악교과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종합적인 음악의 개념을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게 정립하는 것이다. 종교음악을 교육목적의 감상자료로 자유롭게 사용하되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선정한 종교음악이 교육적 또는 음악적인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특정 종교의 음악적 우수함을 강조하기 위해 타종교, 타문화의 전통이나 사람들을 무시하는 연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③ 음악 이외의 특정 종교의 상징이나 신앙을 강조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중립의 위치에서 교육하여야 한다. ④ 종교적 이유로 특정 종교의 음악 감상을 거부하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한다(Phillips, p. 155).

IV. 결 론

현대의 기술문명으로 다양한 대중예술이 등장하고 또 대중매체를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어 대중들로부터 순수예술이 점점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깊이 있는 예술의 아름다움과 교육적인 면보다는 자극적인 즐거움, 순간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왜곡된 예술문화 정서가 학교와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 선정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의 저질 대중음악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이미 어린 학생들에게도 노출되어 순수음악의 참 아름다움을 교육을 통해 이해시키고 가르치기란 쉽지 않다.

합창음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서양음악의 정통성도 유지하지만 적절히 대중문화와 타협하면서 다양한 음악어법으로 대중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기에 본 연구는 합창음악을 적극적으로 음악 감상자료로 개발하여 감상영역을 확대, 활성화시킴으로 서양음악의 역사적 전통성과 음악 지식과 개념을 더 효과적으로 확립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하였다.

참 고 문 헌

- 이흥수 (1981).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이흥수 (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Bartle, J. A. (2003). *Sound Advice*.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arretson, R. L. (1998). *Conducting Choral Music*. New Jersey: Prentice Hall.

- Kaplan, A. (1985). *Choral Conducting*. New York and London: W.W.Norton & Company.
- Phillips, K. H. (2004). *Directing the Choral Music Program*.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adie, S. (Ed.) (1994). *The Norton/Grove Concise Encyclopedia of Music*. New York and London: W.W.Norton & Company.
- Ulrich, H. (1992). **합창음악연구**. 최훈차 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White, J. D. (1997). **음악사를 통한 음악감상**. 김성남 역. 서울: 음악춘추사.

ABSTRACT

Various Approaches to the Development of Choral Music Materials

Kang, Hyojin

Although the domain of music appreciation is emphasized in the current elementary music curriculum, a number of essential works are missing in the view of music history. The domain is composed of musical works derived mostly from the period of Classic and Romantic, and some composed after 20th century which are not likely to reflect the musical discours of modernism properly.

Each period of music history is well characterized with it's own compositional aspects and experiencing the unique aspects should be included in the curriculum. Choral music through out the long span of history well reflects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Not only for the educational purpose but also for the practical purpose in directing school choirs, choral music appreciation does very important roles.

There are a number of musical CDs that can be used in the music class as listening materials. In order for them to be in an educational purpose, the criteria in selecting choral music also should be based on academic approach. To effectively accomplish the academic goals possibly designed by the teachers with creative ideas, the selected materials can be used in class in educating musical concepts such as the background of

music history, choral types, vocal characteristics and dynamics in accordance with each period as well.